

2009. 11. 5.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9년 11월 6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대외협력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청소년 경제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 일 시: 2009년 11월 5일(목) 13:30~17: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최: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KDI
- 후원: 한국소비자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1. 개요

- KDI는 11월 5일(목) 한국경제학회(KEA), 한국경제교육학회(KEEA)와 공동으로 「청소년 경제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제하의 공동세미나를 개최, 미래 주역인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실용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
 - 현재 논의 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경제과목을 사회과목의 일부로 통합하고 교육 내용도 축소하려는 움직임.
 - 이는 경제교육 강화를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 경주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시도
 - 청소년들이 경제적 사고와 지식을 적절히 습득하여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의 적절한 대비와 금융교육 강화 등 경제교육을 실용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
- 이번 세미나에는 김인준 한국경제학회 회장, 전홍택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문승래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문형표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등 경제·금융교육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바람직한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2. 2009 개정 교육과정 개편 논의상의 경제교육 관련 문제점

- 문승래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은 2009년 2월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3월 경제교육 강화 취지의 '교육과정 개정 고시' 이후 6개월도 안되어 경제교육을 위축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 현재의 일반사회 선택과목인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사회·문화' 등 4개 과목을 2개로 축소하게 되면 경제과목 축소가 불가피하고
 - '일반사회'는 과목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등 제반 사회과학을 망라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일 학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역사', '지리', '윤리'와 동등하게 취급해 2과목씩 획일적으로 선택과목을 배분할 경우 학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일반사회 영역의 과목이 가장 많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 '2009 개정 교육과정' 논의의 합리적 대안으로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금융위기 이후 OECD 등의 경제·금융교육 강화 추세 등 사회적 요구에 맞춰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경제' 과목을 독립 교과화 할 것을 제안
 -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경제교육 활용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등에서의 경제교육학과 신설과 경제학 전공자의 교사 진로 확대 등을 통한 교사 공급 체계 개선 등을 제안

3.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 방안

- 천규승 KDI 전문위원은 경제환경 변화와 국내외 경제교육 흐름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가 청소년 금융교육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
-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필수 과목으로서의 「금융생활(가칭)」과 선택과목으로서의 「경제·금융(가칭)」을 신설하고 각급 학교에서 금융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원으로 학교은행을 설치할 것을 제안
 - 또한, 정부가 금융교육을 필수 공공재로 인식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한편 민관기관으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세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 국가표준으로서의 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를 설정하는 한편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적 타당성 평가 및 인증, 금융이해력 조사를 정례화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금융교육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업시간 확보가 미비한 등의 학교 금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
- 금융소비자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도입하여 청소년 금융문맹 퇴치는 물론 은퇴자, 잠재신용문제자, 이혼 가계 등 금융교육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제안
- 특히 금융소비자 교육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주장

— < 주요 국가의 사례 > —

-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청소년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표준을 설정하고 정부가 금융교육 지원을 주도**
 - 미국의 경우, 재무성내의 금융교육실을 설치하여 금융교육을 관장
 - 영국은 금융감독청이 중심이 되어 금융교육 확대
 - 호주는 국민이 유치원부터 10년간 의무적으로 금융교육을 받는 국가금융교육체계 마련
- OECD(2008)는 금융이해력의 부족이 최근 금융위기의 심화원인이라고 지적

※ 문의: KDI 경제정보센터(02-958-4622)

[프로그램]

13:30 ~ 14:00 등 록

14:00 ~ 14:10 인사말: 김인준(한국경제학회 회장)

14:10 ~ 15:40 발표 I: 경제교육에 있어서의 미래형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사 회: 전홍택(한국경제학회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발 표: 문승래(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과 교수)

정석민(서울국제고등학교 교사)

토론 I: 경제교육 실태와 미래형 교육과정

김진영(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온기운(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임재철(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원장)

토론 II: 경제과목 독립의 필요성

이병욱(한국경제연구원 경제교육실장)

박주병(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우원식(체험경제교육교사연구회 회장)

15:40 ~ 15:50 휴 식

15:50 ~ 17:00 발표 II: 경제환경의 변화와 금융교육 내실화 과제

발표 III: 우리나라 금융소비자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사 회: 이은희(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발표 II: 천규승(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III: 최현자(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토 론: 김종호(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곽재원(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송태희(금융감독원 연구위원)

17:00 ~ 폐 회

경제교육에 있어서의 미래형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문승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정석민(서울국제고 교사)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 및 '2009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의 '2009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총론 시안'(2009.9.29) 등에서 경제교육 축소 방안을 제기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총론 시안'(2009.9.29)의 주요 내용

- 현재 일반 사회 선택 과목인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사회·문화' 과목 4개 → 2개로 축소함에 따라 경제 과목도 축소

영역	교과군	교과목(예시)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사회, 역사, 일반사회A, 일반사회B, 역사A, 역사B, 지리A, 지리B
	과학	과학,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 위 표에서 밑줄 친 과목은 현행 고등학교 1학년 국민공통기본교과, 향후 예시된 교과목에서 각 교과군 별로 3과목만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음.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경제교육의 문제점

- 2009년 2월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취지의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는데, 6개월도 안되어 경제교육을 위축시키는 방안 추진
- '일반 사회'는 과목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등 제반 사회과학을 망라한 영역인데, 고등학교 선택과목 결정 논의에서 단일 학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역사', '지리', '윤리'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2과목씩 확일적으로 배분하려는 시도
 - 학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일반사회 영역 과목이 가장 많이 축소될 우려

- 미래형 교육과정 관련 경제교육의 대안과 과제

- 교육과정 개선
 -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금융위기 후 OECD 등의 경제·금융교육 강화 추세 등의 사회적 요구에 맞춰 경제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제'과목을 독립 교과화
 -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경제교육 활용 방안 마련
- 교사 공급 체계 개선
 -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등에서 경제교육학과 신설과 경제학 전공자의 교사 진로 확대
- 경제교육 지원체제의 실효성 제고
 -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경제교육학회의 지속적 연계,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적극적·실질적 활동, 연구 기관과 언론사 등을 통한 경제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경제환경의 변화와 금융교육 내실화

천규승(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겪은 이후 지난 10여 년간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대중화되고 있으나 구체적 세부추진 전략 미흡. 특히 학교 수업에서 금융생활에 필요한 교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경제환경의 변화와 국내외 경제교육 흐름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가 청소년 금융교육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인식할 필요

①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

- 필수과목으로서의 「금융생활」(가칭)과 선택과목으로서의 「경제·금융」(가칭)을 신설하거나,
 - 현재와 같이 금융을 일반사회, 실과(기술·가정), 도덕에서 나누어 가르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법적 구속력을 지닌 내용 체계에 의해 과목별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을 연계
- 금융교육 내용이 수능 시험에 출제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 각급 학교에 금융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은행을 설치하고 미소금융 등 금융권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교사 양성기관에서 금융교육 관련 과목 이수를 필수화하고, 금융교육 담당교사 대상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금융교육지도사 제도를 시행하여 표준화된 훈련과정을 이수한 금융전문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활성화하거나 교사와의 협동수업을 추진

② 정부가 금융교육을 필수 공공재로 인식하여, 적절한 예산 확보,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컨트롤 타워를 설치

- 공공기관, 민간단체, 금융기관, 대학, 매스컴, 시민사회의 교육역량을 학교와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세부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의 생애설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③ 국가 표준으로서의 교육 목표, 내용 체계를 설정

- 빛에 기초한 소비생활을 지양하고 욕구 통제와 저축 기반의 소비생활, 금융선택에 따르는 책임감을 부각
- 교육 대상별 내용체계 설정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

④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적 타당성 평가 및 금융이해력 조사

-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내용을 평가, 인증하여 교육의 신뢰성을 확보.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싱크탱크를 지정하여 평가, 인증 및 금융이해력 조사와 내용 표준화 실무를 효율적으로 집행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최현자(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 금융소비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세계적인 추세로, 과거 산업화시대의 교육목표가 문맹퇴치였다면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목표는 금융문맹의 퇴치라고 할 만큼 금융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금융소비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교육의 1차적인 장은 가정이 되어야 하나 금융소비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모세대의 능력부족으로 가정교육의 기능이 사회나 학교로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
 - 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에서도 금융소비자교육은 비체계적이며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학교 급 별 교육내용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상급학교로 이행함에 따른 교육내용의 심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래의 주역이며 준비된 사회인으로 기능하기 위해 청소년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되고 있으나, 청소년 이외의 금융교육은 대상이 일부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
 -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 교육 주체 간의 연계성 부족,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부족 및 교육의 연속성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소비자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금융소비자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금융소비자교육을 정규교과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금융소비자교육 표준안이 개발되어야 함.
 - 체계적인 금융소비자교육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이를 통해 생활교육,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다양화된 피교육 대상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기회의 제공 가능성 증대
 - 금융소비자교육은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